

김현모 문화재청장, 진안 문화재 현장 방문

천반산·죽도·웅치전적지 방문 국가문화재 지정 검토·보존방안 논의

진안 천반산과 죽도,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 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8일 진안군에 따르면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진안 천반산과 죽도, 웅치전적지를 둘러본 뒤 국가문화재 지정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과 정춘성 진안군수 및 진안군의회 의원은 천반산과 죽도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 신정일·윤주 문화재위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함께했다.

천반산과 죽도일대는 조선시대 사당가인 정여립과 관련된 문화유산(천반산성, 서실, 말바위, 쉼터 등)이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되어 정상부근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특이한 지형과, 죽도 주변을 흐르는 U자 형태의 감입곡류하천이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2019년 7월 국내에서 11번째, 전라북도 2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진안군은 천반산 일대에 진안고원 죽도 지방정원을 계획함과 동시에 명승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 콘텐츠로 창출하여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정원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찾은 웅치전적지는 1976년에 완주군에 한해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으나, 실제 웅치전적지는 진안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



신정일 문화재위원(사진 맨 왼쪽)이 천반산과 죽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부터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수 진안군의회장, 정춘성 진안군수, 김현모 문화재청장, 안호영 국회의원)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밝혀지고 있어, 21년 8월 27일 진안군 세동리 일원을 포함한 문화재구역이 재설정됐다. 이에 전라북도와 진안·완주군은 공동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도 함께했다. 김 청장과 안 의원을 비롯하여 언론·학계·관계 도·군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 점검 후 보

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진안 천반산과 죽도 일대와 웅치전적지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전라북도·진안·완주와 함께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소중한 유산을 잘 지키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태권도 봉사단'의 온라인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태권도 봉사단, 8개국 대상 온라인 교육

300여명 수련생 참가 태권도 보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태권도 봉사단'의 온라인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 전공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파견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에 이어 이번 온라인 태권도 교육 봉사에 50여명의 봉사단원이 소규모 팀을 구성해 각 국가별로 교육을 지도했다.

인도, 라트비아, 모로코 등 8개국(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라트비아, 볼리비아, 모로코, 키리바시) 300여명이 국가별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시한 가운데 온라인 교

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참가한 국가들은 5개 대륙 별로 1개 국가 이상 고르게 참가해 태권도 보급의 의미를 더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온라인 교육 봉사에 참가한 태권도 봉사단원 전원에게 태권도원 소집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퇴소시 자가진단키트 확인, 텀블 입·티스,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직접 나가서 태권도 보급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며 "현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 태권도 해외 보급은 물론 태권도 전공자들에게도 국제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역사·문화 오롯이 담은 유물 공개 구입

정읍시립박물관, 3월 7~11일 신청

정읍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로서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박물관은 지난해 공개 구입을 통해 몽연 김진민, 창암 이삼만, 토립 김종현 등 정읍 역사인물의 글과 그림, 보천교 자료, 태인방 각본 등 역사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

올해는 수집 대상을 정읍의 시(詩)·글(書)·그림(畵)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몽연 김진민과 동초 김석곤, 창암 이삼만, 석지 채용신 등 정읍 출신이거



정읍시립박물관 전경.

나 정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분들의 작품이다.

단,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물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련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콘진원, 지속가능한 K패션 지원... ESG 가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패션을 선도할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패션 분야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패션 분야 제작지원 사업은 ▲지속가능 패션 제작지원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총 3개 부문으로 마련됐다. 제품 다양화를 위해 전년 대비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편성해 패션산업 전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미래세대를 위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국내 패션 브랜드 1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 선정시 의류 분야 최대 5600만원, 잡화 분야 최대 27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컨설팅 및 국내외 마케팅·홍보 등도 지원한다.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자 마련됐다. 총 22개 브랜드에 대해 의류 분야 최대 3800만원, 잡화 분야 최대 16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국내의 컬렉션 및 수주회에 2년(4시즌) 이상 참여한 브랜드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는 선정 브랜드에 패션콘텐츠 기획·제작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온라인콘텐츠 부문은 15개 내외의 과제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 패션 문화전시 부문은 4개 내외의 과제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패션사업 플랫폼 코카패션,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브랜드는 신청서류를 3월 7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뉴시스

